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남성성가단 음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

광림교회는 11월 17일 본당 대예배실에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다. 추수감사절은 부활절,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로 지난 일 년을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다.

이날 김정석 감독회장은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골 3:15~17)'는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진정한 감사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다. 사람들은 주고 받은 것이 있을 때 감사를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며, 어려움이나 곤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한다.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감사를 많이 드린 사람은 다윗이다. 그는 적에게 쫓기고 죽음에 이르는 곤궁 가운데서도 살아 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성도들은 예배 중 성찬식에 참여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본당 로비에는 추수의 풍경을 담은 포도존이 설치되었고, 미술인선교회는 장천아트홀에서 추수감사절 기념전을 열었다.

저녁예배 시간은 광림남성성가단(단장 박동호 장로)이 주관하는 추수감사주일 음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박창석 집사의 지휘로 60여 명의 성가단원들

은 '넓은 들에 익은 곡식' 등 6곡을 모두 외워서 불렀으며, 중간에 조태영·이덕희 권사의 하모니카 합주 '내 주를 가까이' 및 솔리스트들로 구성된 중창단이 '은혜'를 들려 주었다.

특히 마지막 곡으로 합창한 '여리고성과 여호수아'는 8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곡인데 악보없이 힘차게 불러 성도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앵콜곡으로 '예수 믿으세요'를 남성성가단과 성도들이 다같이 부르면서 음악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박동호 장로는 "나이가 드신 단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곡과 가사를 외우면서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여 오늘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단원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박창석 지휘자의 탁월한 지도와 이정아 반주자의 섬세한 반주, 독창자 네 분의 수준 높은 찬양으로 성

가단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도 남성성가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서 저희들과 같이 찬양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젊은 단원들의 발걸음을 기다립니다. 성가단이 70명의 단원으로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고 했다.

남성성가단은 남성만의 우렁찬 소리로 찬양을 드리면서 선교를 돕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1985년 9월에 창단하였다.

그동안 로잔 세계대회 초청연주(필리핀, 마닐라 1989년 7월)를 비롯 세계 각 선교센터와 외국교회, 군부대에 가서 찬양하였고, 각종 성가 합창제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득섭 기자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골 3:15)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광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적자의 인생이 없듯이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라고 말하거나 고백할 때는 무엇인가 눈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고는 하지만 진정한 감사는 우리의 삶에 형통함과 성공 그리고 영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히려 병든 곳에, 가난한 곳에, 절박함과 고통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이를 늘 의식하며 살았던 바울이기에 당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른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하라”라고 전한 바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볼 때는 ‘샬롬’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는 모든 복을 다 아우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하면서 이루어지는 화복된 존재, 이것이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환경이나 여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와 행복과 기쁨은 절대로 조건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얻어지거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즉 조건적인 것에 의하여 ‘감사하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양적인 문제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의 조건이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 곧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여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죄에 매이지 않는 것, 내 과거가 아무리 어두워도 거기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을 가르셨고, 우리를 하



골로새서 3:15~17
15.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일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6.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게 됩니다. 지금의 삶은 곤고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이로 인하여 나의 가는 길이 순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더 나아가 장차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기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세계 그리고 우리의 장래의 일,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있으며 이 평강, 즉 샬롬의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둘째,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 15절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라는 말은 원어로 ‘유카리스토스’의 단어인데, 여기서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는 어디를 가서든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언제나 불평합니다. 불평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이 우리의 불평을 만들고, 불평은 불만을 낳고, 불만은 원망을 낳고, 원망은 곧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122회 나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34회나 ‘감사’라는 말을 합니다. 다윗만큼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를 보면 즐겁고, 기쁠 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은 비참하고도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뿐 아니라 사무엘하 22장 1~3절을 보면, 다윗의 생애가 평안할 때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무엇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눈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

니까? 조건에 의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 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본문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을 가진 후에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것은 겸손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가르치지 못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위로의 말은 겸손한 자만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겐 평강, ‘샬롬’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 그리고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독회장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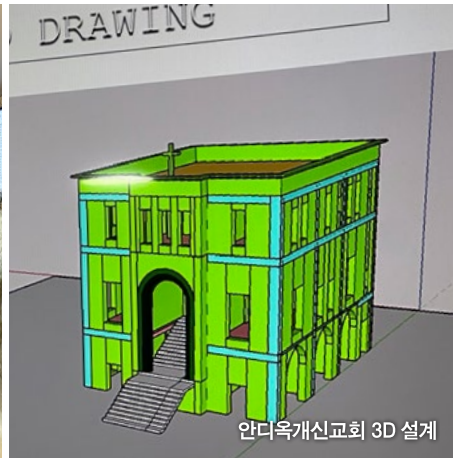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튀르키예 방문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던 안디옥, 부활을 향한 새로운 발걸음



건축회사 관계자들과



안디옥개신교회 3D 설계

- 잔해 해체 공사 승인
- 건축 승인을 위한 행정 준비 진행
- 건축회사와 재건 계획 논의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재건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 진행 중 튀르키예 정부의 요청에 따라 세금 번호 신규 발급과 건축 허가를 위해 지난 11월 13일~15일, 김정석 감독회장과 관계자들이 튀르키예를 방문했다.

안디옥개신교회가 있는 하타이주는 튀르키예 남부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주(州)로, 제1차 세계대전 후 시리아, 레바논과 함께 프랑스의 위임통치를 받다가 1938년 하타이국으로 독립하였고, 1939년 주민 투표를 거쳐 튀르키예 공화국에 병합되었다.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고 있기에 시리아 내전 당시에 많

은 시리아 난민들이 하타이로 이주하면서 치안이 불안하기도 했다. 성 베드로 동굴교회 등 기독교 유적이 많고 아직까지 기독교 공동체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996년 김선도 감독과 성지순례팀이 베드로 동굴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던 중, 개신교회가 없던 안디옥(안타키아)에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하타이주는 시리아 국경지역으로 외국인 토지 소유가 전면 금지된 곳이었기에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 EU 가입을 원했던 튀르키예 정부가 한시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토지 소유를 허용했고, 그때 기적적으로 하타이주 정부 건물 옆 프랑스 영사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때 미국 시민권

자였던 함용철 장로가 도움을 주어 2000년 6월 29일 안디옥 최초의 개신교회인 안디옥 개신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문화재 건물이었던 교회 건물이 70% 이상 무너졌고, 완전 해체 후 재건과 복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고, 현재는 무너진 건물과 균열이 있는 모든 건물들을 해체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있다.

교회 옆 정부 건물, 정교회와 유대교 회당도 재건을 시작했다. 이에 맞춰 안디옥개신교회도 재건을 위해 건축회사를 선정하고 정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건물 해체 승인을 받았으며 건축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를 위해 김정석 감독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정부기관과 건축회사를 방문했으며, 건축 계획과 진행사항을 보고받고 효과적인 재건 방법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안디옥개신교회는 건축 승인 후 바로 공사를 시작해 내진설계 공법으로 세워질 것이며 한국 감리교회 건물로 공식 등록되어 처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진 안디옥에서 새로운 선교 역사를 써나갈 예정이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미리 보는 광림교회 성탄의 이모저모



A MERRY CHRISTMAS

도착(Arrival) 혹은 오심(Comming)을 의미하는 라틴 'Advantus'에서 유래한 대강절(Advent)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로 올해는 12월의 첫 주일부터 시작된다.

대강절을 맞아 광림교회 곳곳에는 예수 탄생

을 기뻐하는 소식들로 가득하다. 12월 1일(주일)에는 선교구성가제가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린다. 또한 광림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탑과 본당 대예배실에 크리스마스 현수막을 설치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한다.

해마다 청년선교국 주관으로 세우는 성탄 트리 역시 12월 첫 주 모습을 드러낸다.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광림교회 밀레니엄 공원을 강남 지역의 '크리스마스 핫 플레이스'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밀레니엄 공원 중앙에 9m 높이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세상을 밝히고, 구름다리 내외부와 본당 로비 포토존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과 대형 리스가 설치돼 연말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또한 밀레니엄 공원에 '포토존' '웰컴존'을 만들어 광림교회 성도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한다. 광림교회 내 크리스마스 명소에서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올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뜻깊

은 시간이 될 것이다.

청년선교국은 12월 1일 ~ 22일까지 4주 동안 사랑의 슈박스 캠페인도 진행한다. 매주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교회학교와 함께 슈박스를 채워 광림교회 해외 선교지와 감리교회 미자립교회, 중증 환자, 강남 지방 저소득층 아이들 1,225명에게 사랑의 슈박스를 전달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

사랑부도 11월 중순부터 '2025 아트캘린더' 판매를 시작했다. 캘린더에는 1년 열두 달, 사랑부 발달장애 화가들이 그린 총 12점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항상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며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는 사랑부 화가들의 창의적이고 감성 풍부한 미술 작품을 일 년 내내 감상할 좋은 기회다. 빛의 숲 광림 서점에서 판매한다.

조성한 목사(목회행정기획실)는 "12월 첫 주일 선교구성가제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슈박스 캠페인, 사랑부 아트캘린더 판매까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축제와 같은 한 달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혜선 기자

포토 뉴스



2024 선교구성가제
12월 1일 선교구 성가제를 위해
각 선교구별로 연습이 한창
진행 중이다.



고3·수험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4일, 수능 당일 나사렛성전에서
시험 일정에 맞춰 기도회를 진행했다.



사랑부 2025 아트 캘린더 판매·전시
12월 8일 ~ 15일 장천갤러리에서
12명의 작가들 작품을 전시하며,
캘린더는 빛의 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감독회장 동정



- 11/12 호남연회 감독취임예배
- 11/13~15 튀르키예 안디옥개신교회 재건회의
- 11/16 월간회의
- 11/17 추수감사예배
- 11/18 서울광장 성탄 트리 점등식
- 11/19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종강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청장년부

‘여인의 향기·아내의 향기·형제여! 일어나라’



가을을 맞이하여 청장년 1부 자매들은 ‘여인의 향기’라는 친교의 자리를 가졌다. 11월 9일(토) 점심에 청담동에서 자매들이 만나 햄버거를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로 그동안의 삶을 나누었다. 평소 주일에 모이다 토요일에 만나 거리를 걸으며 한강 view 카페로 이동했다. 탁 트인 경치에 날씨도 좋아 야외 바람을 맞으며 도란도란 그동안 쌓인 얘기를 하며, 서로 비슷한 생각들을 했음에 공감하고 유대감을 느꼈다.

같은 날, 덕수궁에서는 청장년 2부 자매들이 ‘아내의 향기’로 친목을 나누었다. 아내들은 육아와 집안일에서 해방되어 토요일 오후 ‘격변의 시대, 여성 삶 예술’이라는 전시를 관람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2024년 천경자(1924~2015)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그와 동

시대를 살았던 여성 작가 22명의 작품과 자료로 전시를 개최 중이다.

이날 행사를 진행한 최호산나 부장은 “청장년부에서 매년 진행해 온 아내의 향기는 3040 무렵 결혼, 출산과 육아 그리고 치열한 일터 속에서의 삶을 병행하며 분주한 가운데, 아이와 남편으로부터 잠시 동안 떨어져 아내들끼리만 오롯이 깊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갖는 행사입니다. ‘격변의 시대, 여성의 삶 예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한 후 덕수궁 돌담길을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커피와 점심도 필수이지요. 서로의 일상과 삶을 나누며 그리스도 안의 몸으로 이어져가는 한 지체요, 교회임을 느끼는 뜻깊은 시간이 된 아내의 향기를 진행할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합니

다. 내년에도 아이와 떨어져 있기 힘든 엄마이자, 아내들이 모여 더욱 뜻깊은 시간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라고 감회를 표현했다.

11월 16일(토)에 청장년부 형제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나누는 청계산 산행을 다녀왔다. 오고 가는 산행길 속에 색색으로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새삼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고 정상(만경대)에 올라 바라본 서울의 장대한 경치에 연신 감탄을 쏟아내었다.

이날 ‘형제여! 일어나라’ 산행에 참여한 편기형 부장은 “예수님도 잠시 세상과 떨어져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셨다고 한다. 요즘 MZ 세대들과 외국인들이 서울 근방의 산들

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맛에 산행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고, 우리만 보기에 아까울 정도였다. 또한, 주말마다 청장년부 집회에서 자주 보는 형제들의 얼굴이지만 넓은 대자연 속에서 아무 사심 없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니 상대방이 더욱 귀하게 느껴졌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형제들은 바쁜 세상사를 잠시 잊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각자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음에 감사했다. 앞으로 종종 이러한 즐거운 환기의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하며 하산했다. 주일 예배와 애찬에 다시 만나자며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간 그 발걸음들 위에 항상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고민재 전도사(청장년부)

청년부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

64번째 교회, 네팔 <임마누엘기도감리교회> 건축을 위한 ‘교회 짓는 카페’ 개최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지난 11월 17일(주일), ‘교회 짓는 카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들’이라는 비전을 담아 진행하고 있는 ‘해외 100교회 건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64번째 교회인 네팔 <임마누엘기도감리교회> 건축을 위한 기금 마련을 목적으로 했다. 현재까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해외에 63개의 교회가 세워졌으며, 이번 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열렸다.

행사 당일, 청년들은 정성껏 준비한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며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해외 선교의 비전과 교회 건축 사역의 중요성

을 나눴다. 단순히 음료를 나누는 자리를 넘어, 참가자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깊이 깨닫게 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특히, 청년들이 준비한 성극 ‘내 마음의 집’이 큰 감동을 전했다. 이 성극은 가을학기 진행된 LTS 강의 중 하나인 ‘함께 만드는 성극’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청년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캐릭터를 구성했으며 연출과 연습까지 담당한 결과물이다. 성극은 여러 결핍과 비교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세상적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며,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주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객들은 성극을 통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청년선교국 해외선교팀 이윤경 팀장은 “교회 짓는 카페를 통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지 감사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라고 전하며, 사역에 대한 비전과 기대를 함께 나눴다.

참여한 청년들은 커피 한 잔을 나누며 선교의 사명에 동참했고, 이날 마련된 수익금은 제64번째 교회인 네팔 임마누엘기도감리교

회 건축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안서경 자매는 “이번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나누는 자리를 넘어, 청년들이 함께 교회 건축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선교팀이 늘 기도해 온 교회 건축의 열매를 직접 경험하는 듯해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해외선교팀원으로 참여한 홍승우 형제는 “제가 처음 섬겼던 사역이 ‘교회 짓는 카페’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해외선교를 알게 되어 이번 여름 태국 선교에도 다녀오고, 해외선교팀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광림교회에서 청년들의 힘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정말 뿌듯하며, 더 많은 분들이 해외선교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간증을 나누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은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맡기신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사역을 지속할 계획이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전하며 희망을 밝히는 이 사역에 광림교회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큰 힘이 되고 있다.

김세열 전도사(청년부)

어린이 통일성취기도회



아이들은 분단국가, 통일, 북한이란 단어로 연상되는 것이 전쟁이라고 했다.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더 많아져요. 통일이 되면 땅도 더 커지고,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통일이 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우리나

라가 공산주의가 될까봐 걱정돼요.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까봐 걱정돼요.” 아이들은 통일에 대해서도 나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2024년 11월 9일 토요일 '제2회 광림교회 어

린이 통일성취기도회를 위하여 서부 최전방을 수호하는 해병대 2사단으로 어린이 44명, 성인 31명 총 75명이 출발하였다.

해병대 청룡교회에 도착하여 느헤미야 1장 4~9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운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병영 체험,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박물관 견학, 흔들다리, 평화의 종, 전망대 견학 등 준비된 일정을 차례차례 진행하였다.

병영 체험 시간에는 해병대 2사단 전차대에 방문해서 전차 운용 시범 및 장비 체험을 하였다. 군복도 입어보고, 탱크 안으로 들어가 내부도 살펴보고, 진열해 놓은 총의 방아쇠를 당겨보는 등 아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는 전망대에 올라가 망원경을 통해 북한 땅을 볼 수 있었고, 아이들은 강만 건너면(1.4km) 바로 북한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 북한이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서 신기하고 놀랍다며 북한의 실생활 모습에 큰 관심을 보였다.

1.4km... 걸어서 20~30분이면 닿을 거리! 그 만큼의 거리를 우리는 76년간 닿지 못했다. 북에서는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믿을 수 없을 만큼 고되고, 힘든 현실들이라고 한다. 닿지 못한 76년! 1.4km의 거리가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멀게 느껴졌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심어 놓은 기도의 씨앗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 통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회를 마무리했다.

함정애 간사(교회학교)

교회학교 '감사 더하기 사랑 나누기'



11월 17일(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감사 더하기 사랑

나누기'라는 주제로 이웃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를 거쳐 중고등부까지 모든 교회학교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집에서 준비해 온 다양한 과일과 수건을 정성스레 모아 재단을 장식했다.

아이들은 추수감사절 예배에 본인이 가져온 과일 1개와 수건 1장으로 직접 재단을 장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렸다.

당일 오후 5시까지 모여진 과일과 수건은 저녁 예배 후 교육국 교역자들에 의해 장촌 사랑의 집으로 직접 전달됐다.

사랑의 집은 1991년 개원한 광림 노인 전문요양원으로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에 모여진

과일을 사랑의 집에 전달해 드리는 것은 광림교회 교회학교의 오래된 전통이다. 2년 전부터는 사랑의 집 요청으로 수건도 전해드리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성민 목사(교회학교)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마음을 풍성히 담아 과일과 수건 나눔에 함께해 준 교회학교 모든 부모님과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따뜻한 사랑이 전해졌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박희윤 기자

소년부, 트리니티 성경 공부 'High Light'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2024년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으로 소년부 트리니티를 진행하고 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신앙 고백이 담긴 'High Light'라는 슬로건과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라는 첫

번째 시리즈로 하반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 학교가 기획되었다. 트리니티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은 4주 동안 교육관 5층 소년부실에 모여 1시간 강의를 듣고 있다.

아이들이 궁금해할 법한 질문을 토대로 4가지 소주제 '사도신경은 도대체 무엇인가?', '주기도문이 왜 중요한가?', '교회 헌금은 왜 하는 건가요?', '예배는 왜 이렇게 순서가 많나요?'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11월 3일 개강한 소년부 트리니티는 매 주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11월 24일 종강한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지금까지 배운 강의를 토대로 끝드벨 퀴즈를 열어 1등부터 3등까지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고정수 전도사(교회학교)는 “상반기 트리니티 때는 야고보서 강해를 했기에 하반기 트리니티에는 로마서 강해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부 아이들이 헌금을 왜 드려야 하는지 계속 궁금해했고, 예배 순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호기심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헌금과

예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고심 끝에 주제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트리니티는 교회 안에서 매번 하고 있지만 제대로 깊이 배워본 적이 없어서 몰랐던 것들을 배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트리니티를 통해서 습관적인 신앙을 벗어나고 보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라고 했다.

백민균(소년1부) 학생은 “트리니티에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해 깊이 배웠어요. 성경 지식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어서 좋아요. 다음번 트리니티도 참석하고 싶어요”라며 참여 소감을 전했다.

교회학교에서는 7월에 마무리된 중고등부 트리니티 2기에 이어 12월 중에 중고등부 트리니티 3기도 계획하고 있다.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



2024년 하반기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입했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닌 성령님께 민

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라' '때로는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 '때로는 누군가를 도와주라' 다양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성령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을 6선교구 교역자들과 함께 나누고 하반기 사역에 임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분께 연락을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이 계시면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고 찾아뵙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자마자 두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는 분도 계십니다. 우연히 찾아갔지만,

급한 기도의 제목을 듣게 하십니다.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면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일을 진행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사역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은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때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11월 10일(주일) 감독회장님 설교 중에서도, 옷사가 법계를 옮기는 도중 죽임을 당한 이유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것이라 착각하고 성물을 만졌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법계를 이동할 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레위지와 중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기 위

해서는 먼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하반기 사역의 깊은 깨달음이 앞으로 나아갈 사역의 방향과 지침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하반기 사역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려 합니다.

광림의 모든 권속들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박영균 목사(6선교구)

광림남교회

복음의 빛을 더욱 밝히다



창립 71주년을 맞이하며 용인 동백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복음 통로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 LED 전광판입니다.

광림남교회는 대로변과 경전철이 지나가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동차와 경전철을 타고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며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감독회장님께서 LED 전광판을 통해 복음 전함과 더불어 남교회를 알리는 전도의 기회를 삼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드디어 우리 남교회의 기도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치는 교회 입구인 행정동 외벽에 설치하여 경전철을 이용하는 분들, 차량 신호를 기다리는 분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게 하였고, 도로 건너편의 여러 아파트 단지에 교회 절기와 행사를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광판을 통해 광림의 목회철학, 복음 메시지, 절기에 맞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이미지와 영상을 제작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고 교회를 알릴 예정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LED 전광판 설치가 창립 기념주일 전 설치가 마무리되어 기념주일 3부 예배 후, 성도들과 함께 점등식을 거행하

며 복음의 빛을 밝히었습니다. 성도들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라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힘껏 박수 치며 환호하였습니다.

또한 전광판 설치와 더불어 교회를 재정비하였는데, 기존 외벽에 있던 메인 간판, 입간판을 철거 및 새롭게 달았으며, 교회학교 예배실과 세미나실 사인을 본당에 맞춰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모든 유리문에 물결무늬를 넣어 우리 교회의 선교적 사명의 의미를 담았고, 교회학교 예배실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여 더욱 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꾸몄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대예배당 통행에 불편을 주었던 도로 침하복구공사도 실시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습니다.

광림남교회 성도들은 이번 LED 전광판 설치와 성전 재정비를 통해 더욱 복음 전함에 힘써 매진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아끼기를 다짐했습니다. 이 모든 도구를 통해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 용인지역과 경기 남부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가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윤사무열 목사(광림남교회)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추수감사주일은 단순히 농사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통하여 교회학교 학생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는 이번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한 해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 많은 준비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손수 준비해 놓은 과일과 채소들로 아름답고 풍성하게 꾸미면서, 직접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를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 말씀과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과 단순한 감사에 그치지 않고 주변 이웃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다짐을 적는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다짐들을 예쁘게 꾸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동부 고학년과 중고등부는 단순히 물리적인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영적 열매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풍성한 야채와 과일로만 이루어진 추수감사주일이 아닌, 아이들의 감사를 통해서 더욱 더 영적으로 풍성하고 특별한 추수감사주일로 보냈습니다.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는 해가 지날수록 더욱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점점 채워지는 교회학교를 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아래 있음을 더욱 느끼는 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이 점차 성장하는 모습을 매주 예배와 활동들을 통하여 확인할 때 매우 큰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매주 성장하는 동탄광림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더욱 더 큰 부흥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안형준 전도사(동탄광림교회)

예배위원회 추계 영성수련회


단합과 친교로 결속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 가져



1953년 교회의 탄생과 함께 시작된 예배위원회(위원장 김두원 장로)는 교회의 핵심 기관으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고 있다. 교회의 안전과 질서, 성도들이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맡고, 주보와 뉴스레터 등 예배와 교회 생활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비치하고 배포한다. 또한 예배 전후 갑작스럽게 생기는 돌발 상황에 항시 대비하고, 사전에 점검하는 것은 필수다. 매 주일 은혜롭고

효율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는 예배위원회가 가을을 맞아 지난 11월 16일 추계 영성수련회를 다녀왔다. 예배위원회는 매년 춘계·추계 영성수련회를 통해 믿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화합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추계 영성수련회의 목적지는 강원도 속초 설악산과 속초 해변이었다. 조금씩 물들어가는 가을의 자연 속에서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예배위원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휴식을 통해 단합과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설악산 비전대 숲길을 걸으며 만추의 향기와 사진 삼매경에 빠져도 보고, 케이블카를 타고 오른 권금성에서 사방을 바라보며 가을의 쾌청하고 시원한 바람을 맞는 맛도 일품이었다. 이날은 날씨가 맑아 은혜로웠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설악산의 단풍 절경은 물론이고 맑은 가을 하늘 아래에서 저 멀리 바다까지 보이는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다. 동해안의 푸르른 바다와 해변을 바라보며 비행기를 날리기 게임도 진행됐다. 쾌청한 하늘을 가르며 나르는 비행기를 보며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간 듯 해맑은 웃음이 쏟아졌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 감탄하고, 가을의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예배위원회 추계 영성수련회 시간은 무르익어갔다. 교회에서는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지만, 이날만큼은 서로 편안하게 담소도 나누고 산해 진미가 풍성한 점심 식사와 여유로운 티타임 시간을 즐겼다. 김두원 장로는 “주일마다 성전 봉사의 사명

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예배위원회 봉사자들이 빼어난 가을 경치를 즐기며,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다”면서, “이번 추계 영성수련회가 예배위원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결속을 다지는 값진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예배위원회는 적극적인 신앙, 풍요한 창조, 성실한 생활, 사랑의 실천, 일치된 순종으로 하나님의 주신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성숙한 믿음으로 성실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사랑·은혜·겸손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데 앞장선다. 특히 예배위원회 봉사자들은 예배 시 성도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CPR(심폐소생술)과 자동 제세동기 사용 작동법 등의 교육을 전문기관에서 이수 받았고, 화재 등의 긴급 비상사태 시 대처할 교육, 소화기 비치 장소 숙지 등 사전 교육을 통해 교회 안전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시호 권사(예배위원회 총무)

멕시코 유카탄에서 K-Culture로 복음 전파

리브가선교회 - 이선화, 배명규 성도(26교구)



지난 10월 21일, 멕시코 유카탄주 메리다에 도착한 광림의료선교팀 38명 중에는 두 명의 리브가선교회 소속 헤어 디자이너 이선화, 배명규 성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며 믿음의 동역자이다.

멕시코로 선교를 떠나게 된 계기
이선화 : 선교구 목사님의 권면으로 이번 선교에 합류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 대표님이 기독교인이라서 회사 차원에서 해마다 동남아로 미용 선교활동을 꾸준히 해오다가 올해에는 회사에서 캄보디아 ‘쓰레기 마을’에 1년 과정의 미용학교를 설립했는데 제가 교장을 맡고 있어요. 미용 선교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바쁜 일정에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주신 달란트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이면

어디든 달려가야죠. 배명규 : 직장 상사인 이선화 성도님의 전도로 약 3년 전 광림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직영 매장 원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봉사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마음 먹으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에는 몽골과 캄보디아로 미용 선교를 다녀왔고 그동안 꾸준히 해외 미용 선교를 해오고 있었기에 기쁘게 동참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캄보디아에 미용학교 설립
이선화 : 캄보디아 당카오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쓰레기를 줍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곳에 1년 과정으로 미용학교를 설립하면서 1년에 1명의 졸업생이라도 배출하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1회 졸업생이 9명이나 됐어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그 졸업생들을 취업시키는 성과도 얻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쓰레기 속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학생들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어요.

광림의료선교회와 함께 했던 미용 선교
이선화 : 의료와 미용이 함께 선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광림의료선교회 신성수 장로님과 하경옥 권사님께서 이번 미용 봉사에 저희와 한 팀이 되어 열심히 도와주셨어요. 통역기로 스페인어를 공부하여 현지인들에게 스페인어로 “하나님은 당

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미용 내용도 통역해 주셨어요. 4명이 한 팀이 되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봉사했어요. 의료선교회와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어요. 배명규 : 의료봉사단과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었는데 미용 선교만 할 때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어요. 현지인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고 우리에게 와서 머리를 커트하고 외모를 깔끔하게 가꾸다 보니 그들이 더욱 행복해지는 모습에 가슴이 찡했어요. 한국에서 봉사를 온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애니깁 후손인 한국인 3세대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을 소개하며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번 선교에서 받은 은혜
배명규 : 화장실에 갈 시간도 없을 만큼 바

쁘게 봉사하면서도 현지인들과 막혔던 단이 허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영적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일어나요.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선화 : 저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2024년입니다. 갑자기 가게 된 멕시코 유카탄 선교에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움이 남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광림교회에서 미용을 담당하는 리브가선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정순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2



에덴동산의 선악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 3:17)

아담과 여자가 한 나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말했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어도 좋다. 그러나 이 나무는 선악(善惡)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열매를 먹으면 스스로 부끄러움과 사악함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절대로 이 나무를 바라보지 말고 열매를 먹지도 말아야 한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에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의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하였다. 아담은 곧 잠들었지만, 여자는 동산의 주위를 돌아다녔다. 그때 갑자기 풀숲에서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뱀이 나타나 말했다. “선악과(善惡果)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당시에는 동물들의 말을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었다.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의 말을 우연히 엿들었다면서, 하나님의 말을 끝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보다 뱀의 말이 옳다고 믿었다. 결국,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건네주어 먹게 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했다. 그때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은 여자의 손을 잡고는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은 몸이라 부끄러워 피했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뱀이 저를 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말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배로 기어 다니며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여자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말했다.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_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다. 그들이 에덴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천사가 지키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류는 다시 '에덴동산'(하나님 나라)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벤자민 위스트 작품



아담과 하와의 창조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창 3:22)

하나님이 말한 생명 나무는 에덴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던 특별한 나무로 영생(永生)을 상징한다. 생명 나무의 열매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원천을 뜻하는 것이었다. 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으며, 영혼과 육체 모두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구원되어 죄악(罪惡)에서 승리한 인간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

◀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_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인 선악과(善惡果)를 먹은 하와는 곧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건네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 작품

생명 나무의 열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먼저 '자연적인 의미'로, 만약 인간이 이 열매를 먹으면 인간의 생명을 강건하게 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특별한 열매이다. 또 상징적인 의미로, 인간이 이 열매를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성례전적(聖禮典的, 기독교의 성찬식과 세례식, 또는 이와 비슷한 중요성이나 가치를 가진 의식) 역할을 하도록 하는 열매이다.

하나님은 생명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히고 그들을 에덴동산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동쪽에 천사를 두어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피워 생명 나무를 지키게 하였다.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광림 뉴스레터

